



‘선수 입장’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회식이 14일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전북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전주비전스포츠클럽 전국3×3농구대회 성료

고등부 ‘가그린’·성인부 ‘카이저스’ 우승 차지

(사)전주비전스포츠클럽에서는 전주비전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제1회 전주비전스포츠클럽회장배 전국3×3농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주 외 타지역에서도 참가해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24개팀의 성인부와 8개팀의 고등부 등 총 32개팀이 실력을 겨뤘다.

고등부와 성인부로 나눠 예선전(조별리그전)과 본선전(토너먼트)을 진행했으며, 고등부 우승은 ‘가그린(대표 김승현 학생)’팀, 준우승은 ‘전라북도(대표 최재연 학생)’팀, 그리고 최우수선수상은 ‘김승현 선수(소속 가그린팀)’가 선정됐다. 성인부 우승은 ‘카이저스(대표 김철 선수)’팀, 준우승은 ‘음주페지(대표 장진원 선수)’팀, 3위는 ‘팬텀(대표 나영훈 선수)’팀, D.T.(대표 한용희 선수)’팀, 최우수선수상은 ‘오태선 선수(소속



카이저스팀’)이 수상했다. 박창열 회장은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선도해가는 전주비전스포츠클럽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로 선수와 가족들까지 다함께 즐길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수영’ 조민, 체전 첫 금메달



초등부 여자 자유형 100m S14서 1:55.37 기록
육상필드서 유진희·김성민·박소영 등 은메달

수영 조민(전주자곡초)이 장애학생체육대회 첫 금메달을 안겼다.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첫날인 14일, 조민은 여자 자유형 100m S14(초) 경기에서 1:55.37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끊었다.

이어 이수현(전주 용소중), 장종윤(전주 온빛중)도 대회 첫날 남자 배영 50m, 자유형 100m S5~6(초/중) 은메달 2개, 남자 배영 50m, 자유형 100m S7~8(초/중) 은메달 2개를 각각 획득했다.

대회 첫날 전북선수단은 육상필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유진희(전주신화학교)는 여자 포환던지기

DB(고)에서 은메달을, 김성민(전북맹아학교)은 남자 원반던지기 F12(중)에서 은메달을, 박소영(전북맹아학교)은 여자 포환던지기 F12(고)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강한성(전주 용흥중)은 육상트랙 남자 400m T20(중)에서 1:07.58로 동메달을 안았고, 김시우(전주초)는 수영 남자 자유형 100m S14(초)에서 1:20.16으로 동메달을 가슴에 품었다.

전북선수단은 14일 현재 금 1, 은 7, 동 2로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오는 17일까지 4일간 전북도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전북 선수단은 13개 종목에 선수 119명, 임원 및

관계자 56명 등 총 174명 출전한다.

이번 대회에는 육상종목인 골볼, 보치아, 수영, 육상, 탁구를 비롯해 보급종목인 농구, 디스크골프, 배구, 배드민턴, 볼링, 역도, 조정, 축구, 플로어볼, e-스포츠 전시종목 스피드 등 16개 종목에서 선수 1,885명, 임원 및 관계자 1,722명 등 총 3,607명이 선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개회식은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려 전북선수단이 마지막으로 입장했다. 조배숙·안호영·이춘석 국회의원,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송하진 도지사, 김승환 교육감, 송성환 도의회 의장, 정현을 익산시장, 조규대 익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전북도의회 정호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장, 최영규 교육위원장 외 도의원 3명은 전북선수단을 격려방문했다. /장은성 기자

“넘치는 사랑에 보답 못해 죄송”

‘최장신 센터’ 하승진, 은퇴 선언
한국인 최초 NBA 포틀랜드 활약
국내 9시즌 동안 11.6 득점 이뤘



각오를 다졌다.

하승진은 삼일상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1학년올 마친 후인 2004년 NBA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전체 46번으로 포틀랜드 트레이블레이저스에 지명됐다. 한국인 최초로 NBA 드래프트 지명선수로서 이름을 남긴 순간이다.

두 시즌 동안 46경기에서 나서 평균 6.9분을 뛰며 1.5점 1.5리바운드 0.1어시스트의 기록을 남겼다. LA 레이커스와 경기에서 남긴 13점 5리바운드가 NBA 커리어 하이 기록이다.

이후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로 돌아와 2008년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KCC에 입단한 그는 9시즌 동안 347경기에서 나서 평균 11.6득점 8.6리바운드를 기록했다.

프로농구 신인왕을 거머쥔 것은 물론 2010~2011시즌엔 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MVP)로 뽑혔고, 리그 베스트5에 3번 선정됐다.

2018~2019시즌에는 플레이오프 도중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도 마스크를 끼고 경기에서 나서 등 후튼을 발휘하기도 했다.

국가대표로도 활약하며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과 2003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선수권 준우승에 공헌했다. /뉴시스

미국 프로농구(NBA) 최초의 한국인 선수였던 국내 최장신 센터 하승진(34·221cm)이 은퇴를 선언했다. 14일 개인 SNS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은퇴를 발표했다.

“KCC에 입단한 지 11년째가 됐다. 매년 5월과 6월엔 연봉협상과 자유계약(FA) 등으로 1년 중 가장 예리한 시기였다. 이번 1차 FA협상은 그 어느때보다 길게 느껴졌다”면서 “은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전했다.

“팀에선 ‘협상 테이블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으니 FA 시장에 나가보라’는 말을 힘들게 꺼내줬다”면서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 ‘보상선수도 있고, 금액적인 보상도 해야 하는 나를 불러주는 팀이 있을까,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설명했다.

“신인 때와 3년차 때 우승을 하고 그 이후론 우승과 거리가 멀어 마음의 짐이 꽤나 무거웠다.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신 사랑하시는 팬 여러분 그리고 구단관계자 분들께 죄송한 마음도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 “넘치는 사랑에 보답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아쉬워했다.

“KCC에서 몸과 마음, 열정을 불태웠던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이제 고작 인생의 3분의 1이 지나갔을 뿐이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겠다”고

MLB 류현진, 생애 첫 ‘이주의 선수’ 선정

한국 선수 역대 5번째

LA 다저스 류현진(32)이 미국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이주의 선수’로 선정됐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14일(한국시간) “내셔널리그 이주의 선수로 류현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류현진은 지난주 2경기에서 17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15개의 삼진을 슈어내는 동안 볼넷은 1개, 안타는 5개만 내줬다”고 설명했다.

그야말로 완벽투였다. 류현진은 지난 8일 애들랜타 브레이브스전에서는 9이닝 4피안타 6탈

삼진으로 무실점으로 완봉승을 거뒀다. 투구 수는 93개에 불과했다. 지난 13일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에서도 8이닝 1피안타 1볼넷 9탈삼진 무실점으로 승리를 챙겼다. 8회 1사까지 노히트 노런을 이어가는 등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펼쳤다.

2경기 연속 홈 잡을 데 없는 역투를 펼친 류현진은 2013년 빅리그 진출 후 첫 이주의 선수 영광을 안았다.

코리안 메이저리거로는 역대 5번째 수상이다. 앞서 2000년 9월 박찬호(당시 LA 다저스)가 한국인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주의 선수에 선정됐다. 이어 2002년 7월 김병현(애리조나 다이

아몬드백스)이 수상했다.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뛰던 2010년 4월과 9월, 두 차례 이주의 선수에 올랐다. 가장 최근에는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2016년 9월 이주의 선수로 뽑혔다.

한편, 아메리칸리그 이주의 선수로는 마이크 파이어스(오�클랜드 애슬레틱스), 조지 스프링어(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선정됐다.

파이어스는 지난 9일 신시내티 레즈전에서 노히트노런을 달성했다. 스프링어는 지난 한 주 동안 타율 0.519, 5홈런 10타점을 쓸어 담았다. /뉴시스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시민이 직접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입니다

